

'K리그 샷별 산실' 광주FC, 조성권·정지훈 영입

조성권 - 금호고 출신 중앙 수비수... "신인의 패기로 팀 위해 헌신"
정지훈 - 스피드 좋은 측면 공격수... "팀에 도움 되는 선수 되겠다"

'K리그 미래의 산실' 광주FC가 신인 듀오 조성권과 정지훈을 영입했다. 광주는 29일 광주 U-18 금호고 출신의 조성권(DF·21·울산대)과 정지훈(FW·18·대전유성생명과학고)의 영입을 발표했다.

182cm·70kg의 탄탄한 피지컬을 갖춘 조성권은 대인방어, 커버 능력이 뛰어난 중앙 수비수다.

공격수 출신인 그는 스피드와 드리블, 패스에도 강점을 보이는 등 빌드업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금호고에서는 물론 울산대에서 주장 완장을 차기도 했다.

조성권은 2017 제19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2018 제7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MVP), 2019 전국고교축구리그 왕중왕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합작한 '황금 멤버' 중 하나다.

현재 광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신 공격수 허을, 단국대를 거쳐 올 시즌 프로에 뛰어든 정호연과 금

호고 동기다. '영플레이어상'에 빛나는 엄지성과 군복무 중인 골키퍼 신승훈은 조성권의 1년 후배다.

조성권은 울산대에서는 2020 U리그 8관역 우승, 2022 제103회 전국체전 우승을 이끌었다. 또 제20회 한일 대학 축구 덴소컵과 U-23 올림픽 대표로 발탁돼 3경기를 소화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조성권은 "유스 출신으로서 팀에 대한 애착이 크다. 꿈꿔왔던 프로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신인의 패기와 함께 항상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전유성생명과학고를 졸업한 정지훈은 175cm·65kg의 날렵한 체격을 바탕으로 빠른 스피드와 함께 드리블,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측면 공격수다. 최전방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췄다.

정지훈은 대전유성생명과학고 시절 2020 금석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전국고등학교축구리그 충남대



광주FC가 2023신인 선수로 금호고 출신의 울산대 조성권(왼쪽·DF)과 대전유성생명과학고의 정지훈(FW)을 영입했다. (광주FC 제공)

전 지역 우승에 역할을 했다. 올 시즌에는 전국 고등축구리그(전반기) 우승의

주역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제 55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는 한 경기에 무려 5

골을 터트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정지훈은 "2022시즌 돌풍을 일으킨 팀의 일원이 돼 큰 자부심을 느낀다. 막내로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언급했다.

한편 광주는 K리그의 '샷별'들의 무대로 매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유스팀인 금호고 출신 신인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장단 첫 해였던 2011년 금호고 출신의 이승기(전북)가 신인왕에 등극했고, 올 시즌에는 역시 금호고 '에이스' 엄지성이 K리그 무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면서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광주에서 한 단계 도약한 나상호(서울)는 올 시즌 카타르에서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다. 엄원상(울산)도 광주에서 '샷별'로 빛나며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올 시즌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한 정호연도 신인답지 않은 플레이로 팀의 우승에 역할을 하며 K리그 미래를 밝혔다.

K리그1으로 복귀하게 된 광주가 성적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조성권과 정지훈에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엘링 홀란 벌써 20골 넣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인 엘링 홀란(노르웨이)이 28일(현지시간) 영국 북부 리즈의 엘던트 로드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전 후반 6분에 팀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시티 입성 14경기만에... EPL 최다골 득점왕 노려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서 2골

노르웨이 월드컵 불출전 불똥이

노르웨이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2·맨체스터 시티)은 완성형에 가까운 떡잎이다.

홀란은 29일 영국 리즈의 엘던트 로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 팀의 3-1 완승에 앞장섰다.

잭 그릴리시의 도움으로 멀티골을 몰아 친 홀란은 이로써 올 시즌 리그 19호, 20호 골을 연달아 터트렸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유니폼을 입으며 EPL에 입성한 그는 14경기 만에 20골을 기록했다.

EPL에서 역대 가장 적은 경기를 뛰고 20골을 넣은 것이다. 케빈 필립스(21경기)의 기록을 7경

기나 단축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등을 포함하면 홀란은 올 시즌 공식전 20경기에서 26골을 넣었다.

통계 전문 유포에 따르면 그는 페르 프라드올라 맨시티 감독이 지도한 제2 중 가장 빨리 25골을 돌파했고, 이는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28경기)보다도 빠른 속도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세 시즌 동안 62골을 넣은 등 두각을 드러낸 홀란은 EPL에선 더 맹렬한 기세를 보인다.

골을 넣은 경기보다 넣지 못한 경기를 세는 게 훨씬 빠르다. EPL 14경기 중 3경기를 제외하곤 모두 골 맛을 보며 각종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그는 앞서 EPL 개막 5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9골)을 경신했고, 세르히오 아케로, 마키 쉰(이상 8골) 등을 앞질러 'EPL 데뷔 5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도 작성했다. 또 4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 5라운드 노팅엄 포리스트전, 9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각각 3골을 넣어 EPL 사상 처음으로 홈 3연속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EPL 데뷔 8경기 만에 헤트트릭을 3번이나 달성한 선수도 홀란이 유일하다.

쉬지 않고 득점포를 가동하는 홀란은 또 하나의 대기록을 노린다.

현재 리그 득점 1위인 그는 '최다 골 득점왕'의 타이틀에 도전한다.

역대 EPL 단일 시즌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1993-1994시즌 득점왕 앤드루 콜, 1994-1995시즌 득점왕 앨런 시어러(이상 34골)다. 당시에는 팀당 42경기씩 치렀다.

현재의 38경기 체제로 변경된 뒤에는 무함마드 살라하(리버풀)가 2017-2018시즌 32골을 기록한 게 최이다. /연합뉴스

김주형, 퀴드러플 보기 하고도 PGA 우승 올해 '황당하고 머쓱한 순간' 10건에 뽑혀

미국 골프채널 선정

김주형(2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원덤 챔피언십 1라운드 1번 홀(파4)에서 퀴드러플 보기를 하고도 결국 우승한 일이 올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머쓱한 순간'에 뽑혔다.

미국 골프채널은 올해 PGA 투어와 DP월드투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등에서 벌어진 다소 황당하면서 머쓱했던 사건 10건을 추려 29일(한국시간) 소개했다.

김주형은 당시 1번 홀(파4)에서 8타를 쳐 머쓱하기 짝이 없는 순간을 맞았다.

프로 선수가 이른바 '양파'로 경기를 시작한 망신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웃어넘긴 김주형은 1라운드를 3언더파로 마쳤고 끝내 우승을 차지했다.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스킵 세플러(미국)는 우승 세리머니를 앞두고 멧먹은 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최종 라운드 18번 홀(파4)에서 4퍼트 더블보기를 했다.

워낙 타수 차이를 크게 벌여 놓았던 터라 우승에는 지장 없었지만,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1m도 채 되지 않은 파퍼트와 보기 퍼트를 거푸 넣지 못한 세플러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세계랭킹 1위 선수의 마스터스 우승 순간치고는 모양 빠지는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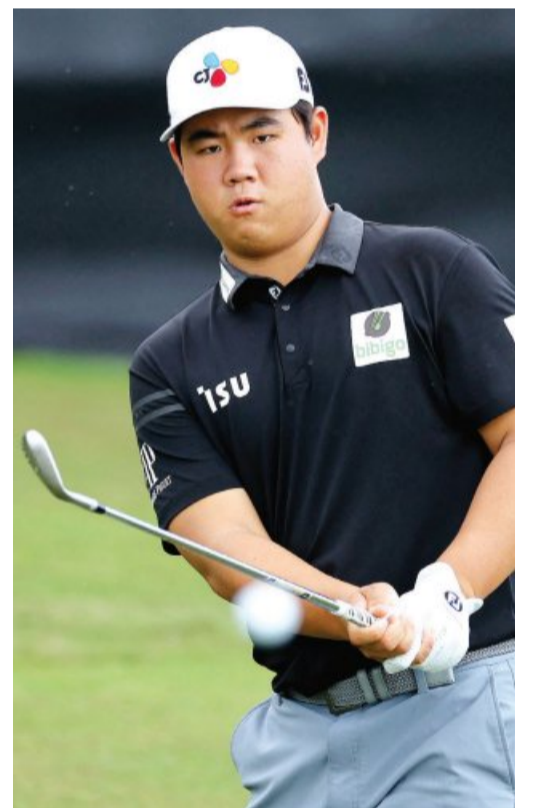
퍼트하고선 불이 홀에 들어가기 전에 홀을 향해 걸어가는데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도 쑥스러운 순간을 겪었다.

1월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최종 라운드 8번 홀(파3)에서 2m 거리 버디 퍼트를 한 케빈 나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고 홀을 향해 발을 뻗었지만, 불은 홀을 외면했다.

스코티시 오픈 1라운드 16번 홀(파5) 그린에서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도 소개됐다.

당시 월 젤러토리스(미국)가 그린 밖에 칩샷한 불은 그린에 올라와서는 동반 경기자인 매슈 피츠 패트릭(잉글랜드)의 볼 마크 위에 멈췄다.

두 선수는 물론 지켜보던 관객 모두 보기 드문 장면에 웃음을 터트렸다.



김주형

DP 월드투어 힘파란트 대회 때 아론 코커필(캐나다)은 2라운드에서 홀인원을 하고도 컷 탈락했다. 스코어카드에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앞선 대회 때도 홀인원을 해서 2주 연속 홀인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실격이라는 머쓱한 상황을 맞았다.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6번 홀(파4)에서 넬리 코다(미국)가 친 불이 페어웨이를 크게 벗어난 갤러리가 다니는 길목에 떨어졌다.

중계 카메라가 불이 떨어진 지점을 비추고 있었는데 지나던 여자 관객이 불을 집어 들었다.

신나는 몸짓까지 하면서 길을 가던 그 관객은 다른 관객이 황급히 불을 있던 자리에 내려놓으라고 재촉하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불을 내려놨다.

/연합뉴스

류현진 다시 미국으로... 팔꿈치 수술 후 재활 7월에 복귀 전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 제이스의 원수 투수 류현진(35)이 한 달간의 짧은 국내 체류를 마치고 29일 미국으로 떠났다.

류현진은 인천발 미국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올라 곧바로 팀의 스프링캠프와 재활 시설 등이 있는 플로리다주 터니든으로 이동해 재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6월 중순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하고 시즌을 일찍 마친 류현진은 이후 재활 프로그램에 맞춰 훈련을 해왔고 지난 11월 22일 귀국해 휴식과 재활 훈련을 병행했다.

MLB 진출 후 2월 중순 스프링캠프 개막에 맞춰 해마다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출국하던 류현진이 이 세월에 떠난 건 그만큼 재활 속도를 빨리 끌어

올렸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

공 던지는 훈련을 시작한 만큼 따뜻한 더니든에서 투구 거리와 투구 횟수 등을 점차 늘려 복귀를 서두르겠다는 계산이다.

류현진은 출국 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복귀 시점을 올스타 휴식기 후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되는 7월 중순으로 예상했다.

2013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MLB에 진출한 류현진은 올해까지 통산 75승 45패, 평균자책점 3.27을 올렸다.

자유계약선수(FA)로 토론토와 2020년 4년간 8000만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은 내년 시즌을 건강하게 마치면 다시 FA로 장기 계약할 찬스를 잡는다. /연합뉴스